

2023년 경향글쓰기 플러스 겨울 강좌

백승권의  
‘한번에 통과되는  
보고서 작성법’

2023년 1월 6일 ~ 1월 27일

매주 금요일, 저녁 7시~9시

경향 후마니타스연구소



2023년 경향글쓰기 플러스 겨울 강좌

# 한번에 통과되는 보고서 작성법

( 1월 6일 ~ 1월 27일 매주 금요일, 저녁 7시~9시)

<목차>

제 1강 1월 6일 - 결재권자를 위한 핵심요약

제 2강 1월13일 - 논리전개의 카테고리 활용

제 3강 1월20일 - 개조식 문장, 통계 표현

제 4강 1월27일 - 기획보고서, 결과보고서 작성 및 피드백

## ■강사 백승권 실용글쓰기연구소 대표

동양미래대학에서 '보고서 등 실용글쓰기' '사회진출을 위한 직무 글쓰기' 등 글쓰기 전담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프레시안 '직장인을 위한 실용글쓰기'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환경부, 서울시 인재개발원, 국회 의정연수원, GS그룹, 서울대 등 기업, 공공 기관, 대학 등에서 실용글쓰기 강연과 교육을 400여 차례 진행했습니다. 실용글쓰기 책 『글쓰기가 처음이다』 등 10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1990년대 <미디어오늘>에서 기자생활을 시작해 방송팀장을 지냈습니다.

2000년대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선임행정관(3급)으로 일하며 <청와대브리핑>에 게재하는 대통령보고서, 정책기사를 작성하거나 첨삭하는 데스크 업무를 맡았습니다.

『참여정부 국정 운영 백서』(총9권) 집필을 총괄했습니다. 동국대학교 중장기발전 계획 『미래비전 2020』을 집필했습니다.

Mobile 010-8840-2201 Email [daeyasan66@naver.com](mailto:daeyasan66@naver.com)



# 1. 보고서 작성

## 국회 입법 보고서

### □ 현황

○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겸직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면서(「국회법」 제29조), 의원의 영리업무 종사에 대하여는 의원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적 규정이 없음.

- 참고로, 국가공무원의 경우 직업공무원이라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나, 공무원 외에 영리업무, 특히 직무수행에 지장을 야기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 다만, 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에 대하여, “상임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함(「국회법」 제40조의2).

- 이 규정에 근거하여 「공직자윤리법」상의 주식백지신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원이 보유한 주식과 소속상임위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여부가 결정되고 있음.

### □ 문제점

○ 국회의원에게는 사실상 급여의 형태로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가 지급되고 있고, 보좌진 급여와 국회청사내 사무실 운영경비 등 활동비가 국회소관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후원회를 통하여 모금된 정치자금을 지역구 사무실 운영 등 정치활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국회의원의 생계 및 정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겸직이 포괄적으로 허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속 상임위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영리업무도 사실상 허용된 상황은 일종의 특혜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특히,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종 출신 의원의 경우 임기개시 후에도 해당 전문직 활동을 휴직(휴업)하지 않고, 관련 사건의 수임이나 고문 등을 통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의 청렴의무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영리적 이득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됨.

## 배달앱 · 셀카봉의 슬픈 이면

배우 박신혜는 한 배달앱 광고에서 이런 투정을 한다. “왜 배달 음식 주문만 통화를 할까. 스마트폰으로 옷 살 때 통화해? 책 살 땐? 영화표 살 땐?”

광고가 전달하는 뜻은 간단하다. ‘전화 주문 없이도 음식 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장면 두 그릇이요”, “오리지널 치킨 한 마리요” 등등 여타의 말이 필요 없이 원하는 메뉴를 손가락으로 꺾꺾 누르고 결제만 하면 된다. 수수료 때문에 부정적 인식도 더러 있지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매출 규모는 연 1조원대로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

편리함으로 치자면 작년 중반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셀카봉만한 것도 없다. 길게는 1m까지 늘어나는 봉 끝에 휴대폰을 고정하는 셀카봉은, 여러 사람이 함께 이탈자 없이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하좌우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 연출도 가능하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지난해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로 뽑기도 했던 셀카봉은 최근 줌 기능까지 탑재해 편리함을 더해가고 있다. 셀카봉의 출현과 함께 유명 관광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던 “사진 좀 찍어주실래요?”라는 말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다.

<탈무드>에는 “입은 말을 통해서 사람의 육신이 공간 속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며, 사람은 말을 함으로써 공간 속에 자기 자리를 잡고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손이 곧 입이 된 디지털 사회에서 사람은 ‘말’이라는 매개체 없이도 손가락 움직임 하나로 배달 음식을 주문하며,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사진을 찍고 길을 찾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타인에게 말 걸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단절의 시대가 함께 찾아왔다. 어느 때보다 더 타인과의 소통을 강조하지만 가장 쉽고 흔한 소통조차 사라지고 있는 모순된 사회. 디지털 사회의 편리함 속에 잊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 쓸데없음의 가치

올봄, 서울대 인문대학원에서 야간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그중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에 관한 시간. 교수님이 처음에는 정해진 자료에 따라 강의하다가 점점 관련 연구 이야기를 신나게 하기 시작했다. 당시 인도에 간 구법승이 혜초 외에도 많았는데 그들이 얼마나 살아서 돌아왔는지가 궁금해졌다. 그래서 온갖 고문헌을 추적해 구법승들의 생활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교수님을 보며 든 두 가지 생각. ‘아, 아름답다.’ 그리고 ‘아, 그런데 쓸데없다.’ 깨달음의 순간이었다. 인문학의 아름다움은 이 무용(無用)함에 있는 것이 아닐까. 꼭 어디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궁금하니까 그걸 밝히기 위해 평생을 바칠 수도 있는 거다. 물론 구법승 생활을 토대로 당시의 풍토, 지리, 정세에 관한 연구를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꼭 그런 용도로 연구를 시작하신 것 같진 않았기에 든 생각이다. 실용성의 강박 없이 순수한 지적 호기심만으로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학문의 기본 아닐까. 그 결과물이 활용되는 것은 우연한 부산물일 뿐이고, 수학자들은 그 자체로는 어디에 쓸 일 없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 350여 년간 몰두했다. 그 시행착오의 과정에서 많은 수학적 이론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인문학적 경영’ 운운하며 문사철 공부하면 스티브 잡스처럼 떴든 벌 길 열리지 않을까 기대하는 CEO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잡스는 나중에 뭘 하려고 리드 대학에 가서 인문학 공부를 한 것이 아니다. 그는 그저 히피, 외톨이, 괴짜들과 어울려 쓸데없이 놀다가 한 학기 만에 중퇴한 후 예쁜 글씨 쓰기에 매료되어 캘리그래피 강좌를 청강했다. 매킨토시의 아름다운 서체는 여기서 나왔다. 쓸데없이 노는 시간의 축적이 뒤늦게 화학작용을 일으키곤 하는 것이다.

현재 쓸모 있어 보이는 몇 가지에만 올인하는 강박증이야말로 진정 쓸데없는 것이다. 세상에는 정말로 다양한 것이 필요하고 미래에 무엇이 어떻게 쓸모 있을지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무엇이든 그게 진짜로 재미있어서 하는 사람을 당할 도리가 없다.

물론 슬프게도 지금 몰두하고 있는 모든 것이 언젠가 쓸모 있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또한 실용성의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로또 굶는 소리다. 하지만 최소한 그 일을 하는 동안 즐겁고 행복했다면 이 불확실한 삶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쓸모 있는 일을 이미 한 것 아닐까.

## 식품 사업의 현황 및 트렌드

1. 편의점 간편식이 새로운 흐름으로 부상
2. 유기농, 친환경 식품 시장 확대
3. 인증 식품 선호 등 재료의 신뢰성에 대한 관심 고조
4. 프리미엄급 수입 식품 인기
5. 저염, 저당, 저칼로리 등 자연식 트렌드 열풍
6. K-푸드 열풍 가속화
7.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식품 구매 급증
8. 가정과 야외에서 즉석 요리 가능한 즉석 식품 선호
9. 할랄 시장 개척 및 대중국 분유 수출 증가



클라우드펀딩의 종류엔 어떤 것들이 있고, 일반 투자자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퀴즈 하나 풀어볼까요.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뛰어난 로렌스 레식 하버드대 교수, 5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연평해전', 카셰어링(차량공유) 스타트업 '쏘카'. 이들 셋의 공통점은 뭘까요. 눈치 채셨나요. 맞습니다. 이들은 모두 클라우드펀딩으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우선 레식 교수. 그는 최근 몇 년 새 전 세계를 달군 '공유경제 (Sharing Economy)'의 개념을 정립한 학자로 유명합니다. 그는 지난달 미국 클라우드펀딩 사이트 킥스타터를 통해 미국 노동절(9월 첫째 월요일)까지 100만 달러가 모이면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공언했어요. 그리고 노동절 하루 전날인 지난 6일(현지시각) 약속대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참여를 선언했지요. 공유경제 전문가다운 신선한 정치참여 방식입니다.

국내에서도 클라우드펀딩은 많이 있었습니다. 제작비가 모자랐던 영화 연평해전은 클라우드펀딩으로 20억원의 제작비를 조달했어요. 전체 순제작비 중 3분의 1이 클라우드펀딩에서 나왔습니다. 해외에선 애플·삼성보다 먼저 스마트워치를 개발한 스타트업 '페블'이 클라우드펀딩의 전설로 통합니다. 투자금이 없어 시제품을 못 만들던 페블은 2012년 킥스타터에서 2시간만에 109억원을 조달했습니다. 1년 후어나 받아볼 제품을 킥스타터에서 예약한 사람들이 27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량공유 스타트업 쏘카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쏘카는 지난 7월 P2P(개인 대 개인) 대출 사이트인 8퍼센트를 통해 13억원의 자금을 조달했어요. 쏘카의 기업 비전, 성장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람들이 1인당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돈을 빌려줬습니다. 쏘카는 투자자들에게 12개월 안에 매달 대출금리 4.5%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쏘카와 8퍼센트는 투자금액에 따라 쏘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기도 했어요. 투자자들이 금전적 투자에만 그치지 않고, 기업의 가치에 투자하는 경험을 제공한 것이죠. (중략)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2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발표했어요. 클라우드펀딩으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발행인, 즉 투자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창업 이후 7년 이하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제한됐습니다. 다만 비상장 중소기업이 신기술개발을 하거나 신규 문화사업 등 프로젝트성 사업을 할 때는 업력이 7년을 넘어도 증권형 클라우드펀딩이 가능합니다. 참, 금융·보험업이나 부동산업, 무도장, 골프장 등 법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업종도 제외됐습니다. 기업 한곳당 연간 최대 7억원까지만 클라우드펀딩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제한을 뒀고요. - 중앙일보, 틈틈이 경제 - 클라우드펀딩이 뭐가요

## 서술형 텍스트

이번 주 유기농 식품 구매 의사를 묻는 전국 주부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0%가 긍정적으로 답변해 앞으로 엄청난 수요가 예상된다. 유기농물류 협회에서 이 예상 수요를 매출 증가세와 연결해 분석한 결과 유기농 시장이 매년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유기농 프랜차이즈 점포를 대도시의 주요 거점 지역마다 설립하고 중소도시까지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인 생산기반, 물류센터와 물류망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

금융허브 정책을 추진해온 지난 1년여 동안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고, 금융허브 정책에 대한 대내외적인 공감대가 확산된 반면

○ 최근 들어서는 외국자본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의견도 제기되어 금융허브정책의 이해를 높이고, 외국자본에 대한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모으고 이를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

이에 따라 금융허브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한편 잘 된 점은 더욱 잘 되도록 하고, 아쉬운 점이나 잘못된 점은 시정하는 기회를 가질 필요

○ 특히 추진 과정상의 드러난 문제점과 그동안의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추진전략을 재검토하고 보완할 필요

### 1. 금융허브의 전제조건

- 동북아 금융허브의 달성을 위해서는 매력적인 금융시장, 선진화된 규제, 감독시스템과 함께 풍부한 금융전문인력의 존재가 기본적 전제조건
- 금융전문인력이 충분히 양성되지 않을 경우 외국 금융회사가 국내진출을 주저하게 됨으로써 동북아 금융허브 달성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
- 특화 금융허브 달성을 위해 전략적 선도분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자산운용, 파생상품, 리스크관리, 상품개발 등 선진형 금융분야의 전문인력이 필요

### 2.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 금융의 겸업화, 전문화, 정보화 등에 대응하여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정 분야에 전문화한 우수한 금융전문인력의 확보가 핵심적 과제
-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업무에 능통한 generalist보다는 특정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specialist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

### 3. 금융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한 현실

-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금융전문인력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크게 부족한 실정
- IMD의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금융전문인력, 국제관리인력, 외국인 고급인력 등 고급 인적자원이 경쟁국인 홍콩과 싱가포르에 크게 뒤쳐짐

**인적자원의 국제순위 비교**

	(순 위)			
	한 국	홍 콩	싱가포르	중 국
금융전문인력 <sup>1)</sup>	45	11	15	39
국제관리인력 <sup>2)</sup>	5	2	3	59
외국인 고급인력	42	5	2	28

주 : 1) Finance skills are readily available, 2) International experience of senior managers  
 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4

## 설 성수품, 물량 확 늘리고 깎아주고

설 연휴에 프로농구를 반값(일반석 기준)에 관람할 수 있다. 바깥나들이를 하려면 경복궁 등 4대 고궁이나 종묘, 국립생태원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이다. 관람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오션월드나 캐리비안베이 등 실내 워터파크도 최대 50% 할인행사를 하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숙박도 20% 정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설 성수품도 여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할인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아 '설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성수품 물가 관리에 부쩍 무게를 뒀다. 설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체감 경기가 악화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13일부터 26일까지를 특별공급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 정부, 농·수협·산림조합 등이 보유한 물량을 평소보다 최대 1.4배까지 더 공급한다. 품목별로 채소·과일은 평소보다 최대 170%, 수산물은 30%까지 더 공급한다.

성수품·선물세트 할인판매도 한다. 농·임협 특판장이나 직거래장터 등 모두 2446개소에서 진행된다. 골목형 슈퍼마켓인 나들가게 1천곳에서도 19~23일 기간 동안 부침가루·식용유 등 명절용품을 최대 반값 할인한다. 인터넷 수협쇼핑 등 수산물 전문 쇼핑몰과 공용홈쇼핑 등 온라인 몰에서도 성수품 할인 행사를 한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뒤 첫 명절이란 점을 고려해 5만원 이하 실속형 선물세트 출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실속형 선물세트는 주로 농협과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에서 내놓을 예정이다.

14~30일까지는 '2017년 겨울 여행주간'으로 정했다. 전국 1천여개 주요 문화·여행시설을 무료·할인 개방하거나 겨울축제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설 연휴 때는 프로농구 일반석을 50% 할인하고 국립국악원·예술의전당·국립극장 공연도 20~50% 할인한다. 전국 박물관·미술관 80개소도 무료입장이나 관람료 할인을, 4대 고궁, 종묘, 국립생태원 등도 관람료를 50% 깎아준다. 오션월드, 캐리비안베이 등 실내 워터파크도 최대 50% 할인행사를 하며 농촌체험휴양마을 50곳도 숙박 등을 20% 싸게 이용할 수 있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임금을 제때 못 받는 노동자를 위한 대책도 있다. 중소기업엔 대출 21조2천억원, 보증 9천억원 등 모두 22조원의 설 특별자금이 배정됐다. 전통시장 상인에겐 무담보·무보증으로 운영자금(미소금융)을 최대 1천만원까지 빌려준다.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 단속이

강화된다. 상습·고액 체불 사업주는 적발되면 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다. 임금을 떼인 노동자엔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7일 이내에 정부가 지급(소액체당금)하기로 했다. 여기에 이런 노동자에게엔 1천만원 한도로 연 금리 2.5%의 대출도 지원한다.

이외 설 연휴 전날인 26일부터 30일까지를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고속·시외·전세버스, 열차 등의 가능한 범위에서 증편 운행한다.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하며, 병원과 약국은 돌아가며 문을 연다.

**"서울대 국제화 수준 세계 명문대 중 하위권"**  
**영미권 대학과 국제공동연구논문 비교하니 8곳 중 7위**  
**예성준 교수팀이 제출한 국제화 기획보고서...대학본부 지원 절실**

서울대의 국제공동연구논문 수가 영국 옥스퍼드대, 미국 스탠퍼드대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중심대학과 비교해 크게 적어 국제화를 위한 대학 본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서울대 평의원회에 따르면 예성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 12명은 최근 외국 대학과의 연구 국제화 정도를 비교·분석한 '서울대 연구국제화 현황 및 지원방안' 기획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했다.

연구진은 2010~2014년 세계적 초록 및 인용 데이터베이스인 'Scopus'에 게재된 논문과 국제협력을 통해 출판한 논문을 분석했다.

서울대는 5년간 1만 899건의 국제공동연구논문을 게재했다. 2010년 1천848건, 2011년 2천11건, 2012년 2천364건, 2013년 2천335건, 2014년 2천341건으로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영미권의 연구중심 종합대학 7개와 비교해보니 8개 대학 중 7위였다.

1위인 캐나다 토론토대는 같은 기간 총 3만 2천508건을 써 서울대의 3배에 달했다. 다음은 영국 옥스퍼드대(2만 8119건), 미국 스탠퍼드대(2만 102건) 등으로 학교 간 규모와 학생 수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도 서울대보다 크게 앞섰다.

총 논문 수에서 국제공동연구 논문 수가 차지하는 비율도 서울대가 26.4%로 최하위였다. 옥스퍼드대가 53.2%로 1위, 이어 토론토대(45.5%), 호주 멜버른대(43.2%) 등 순이었다.

싱가포르대, 동경대, 베이징대, 홍콩대 등 아시아권 유명 종합대학과 비교해도 서울대는 하위권이었다. 지난 5년간 누적 국제공동연구 논문 수는 비교 8개 대학 중 7위였고, 총 논문 수에서 국제공동연구 논문 수 비율은 6위에 그쳤다.

연구진은 "상위 10%로 많이 피인용된 논문 개수에서 서울대는 비교 대학 중 최하위"라며 "국제공동논문 수가 많은 대학일수록 상대적 피인용지수가 높은 만큼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연구의 국제화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국제공동연구 외에 대학의 국제화 수준을 보여주는 다른 지표들에서도 서울대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2015년 기준 서울대 전임교원 중 외국인 교수의 비율은 4.96%로, 동경대·

교토대(10%대), 홍콩대·싱가포르국립대(20% 이상) 수준에 크게 뒤졌다.

국제적 연구 성과를 보여주는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 해외 연구비 수주 건수 및 액수도 답보 상태에 머무른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외특허 출원·등록 건수는 2012년 229건·120건에서 2013년 325건·144건으로 늘었다가 2014년 227건·113건으로 줄었다. 해외 연구비 협약 건수는 2012년 42건, 2013년 43건, 2014년 51건이며 수주금액은 2012년 35억원, 2013년 38억원, 2014년 40억원으로 다소 늘고 있으나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교원과 우수한 학생을 확충하고, 세계적 이슈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려면 학문 분야의 특성에 맞는 대학 본부 차원의 지원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알파고는 인간 돕는 약AI...자아 갖는 강AI는 먼 얘기

기계가 넘을 수 없는 영역으로 여겨졌던 바둑에서 인공지능(AI)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꺾자 AI 발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과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인류는 100년 내에 AI에 의해 끝날 것”,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는 “AI 연구는 악마를 소환하는 것”이라며 AI의 부정적인 측면을 경고한 바 있다.

AI는 크게 ‘강(強)AI’와 ‘약(弱)AI’로 구분된다. 쉽게 말해 영화에 등장해 인류를 위협하는 슈퍼컴퓨터·로봇 같은 게 강AI다. 자아를 가지고 자기를 지키려 하며 스스로 진화·발전한다.

이에 반해 알파고나 IBM의 왓슨처럼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발된 게 약AI다. 하드웨어·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산업 현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인간의 물리적 한계를 보완해준다. 이미 의료·교육·경영·서비스 등에서 활발히 활약 중이다. 그러나 약AI는 인간의 지시를 따를 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호킹·머스크가 경고한 것은 강AI다.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이런 강AI를 ‘특이점(Singularity)’이라는 용어로 설명했다. 특이점은 기술 발전이 이어지면서 AI가 인간을 뛰어넘는 순간을 뜻한다. 이 특이점을 뛰어넘으면 AI 스스로 자신보다 더 똑똑한 AI를 만들어 지능이 무한히 높은 존재가 출현하게 된다. 바로 강AI다. 커즈와일은 당초 2045년이면 특이점이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지난해 이를 2030년으로 앞당겼다.

하지만 AI 전문가들은 이런 견해에 대해 “기우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세계AI학회의 ‘혁신 응용상’을 수상한 경희대 경영학부의 이경전 교수는 “AI의 발전 속도가 우리 사회의 공론화 속도를 앞서면서 낯선 기술에 대한 공포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인간이 시킨 일을 더 잘하게 되는 것이 스스로 자의식을 갖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현재 뇌과학 기술은 쥐의 뇌 구조를 일부 재현하는 정도다. 1000억 개가 넘는 인간 뇌신경에 대한 연구는 이제 겨우 시작한 단계다.

송대진 충북대 경영정보학과 교수는 학술지 ‘뉴로퀀톨로지’에 AI의 한계를 ‘의식의 계산 불가능성’이라는 이론으로 증명했다. 인간의 생각·감정·의식은 컴퓨터의 계산이나 알고리즘으로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약AI도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것은 분명하다. 대표적인 것이 사람의 일자리다. 지난달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는 AI의 발전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선진국·신흥시장 등 15개국에서 일자리 710만 개가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반해 새로 생겨나는 직업은 210만 개에 불과하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2018년이면 300만 명 이상의 직원이 ‘로봇 상사’(Robo-boss)의 감독하에서 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I의 적용 과정에서 법·제도의 미비로 사회·경제시스템이 갑자기 허물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섹스로봇·살인기계처럼 인권·도덕·책임 등 여러 분야에서 가치 충돌이 불가피하다.

물론 AI의 발전이 중장기적으로 고용이나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김석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적어도 이제는 AI 개발에서 효율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인간과의 윤리적인 공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AI 발전에 따른 윤리·법·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같이 태어나 다르게 자란 인류 문명의 두 양상

16세기 초, 스페인 정복자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두 개의 문명이 존재했다. 지금의 멕시코 지역의 아즈텍 문명과 페루 지역의 잉카 문명으로, 이미 뛰어난 수준에 이르러 있었다. 그런데, 정복자들은 아즈텍의 '소름끼치는 희생 제의'를 목격했다. 전쟁포로들은 피라미드 계단 아래 일렬로 서 있다가 한 명씩 차례로 끌려 올라왔고, 사제들은 희생자의 팔뚝이는 심장을 꺼냈다. 어떤 때는 2만명이나 되는 포로를 대상으로 나흘에 걸쳐 심장을 꺼낸 적도 있다고 한다. 우리에게 '남미 원주민의 잔혹성'으로 알려진 대목이다.

우리 독자들에게 <생각의 역사 I·II>(2009, 들녘 펴냄)로 알려진 피터 왓슨(73)이 또다시 두터운 책을 갖고 찾아왔다. 이번에는 유라시아와 아메리카의 문명이 왜 달라졌는지 따져묻고, 나아가 인류 문명의 의미를 살폈다. <생각의...>가 1000쪽을 넘겼는데, 이번엔 그래도 700쪽 정도다.

<위대한 단절>에서 지은이는 인류 역사의 한 지점을 포착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기원전 1만5000년께 처음으로 고대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들어왔고, 그로부터 기원후 1500년대까지(콜럼버스 상륙) 지구상에는 '완전히 분리된 두 집단'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거대한 지적 여행이 시작된다. 기후학, 지질학, 고생물학, 신화학, 식물학, 화산학 등이 이번 여행의 식량이다.

책은 3부로 이뤄져 있다. 1부는 최초의 아메리카인들이 신세계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았다. 현대 인류는 대략 15만년 전 아프리카에서 진화했고, 12만5000년 전에 작은 집단이 아프리카를 떠나 인류 최초의 여정을 시작했다. 이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습했던 아라비아 반도를 가로질렀다. 이 집단은 모두 더해도 5000명 정도에 불과했으며, 지구상의 모든 비아프리카인들이 이 집단의 후손임이 유전학적으로 증명됐다. 2만5000~2만2000년 전, 인류는 시베리아와 알래스카를 연결하는 '베링 육교'에 도착했고, 드디어 신세계에 첫발을 들일 준비를 마쳤다. 저널리스트 출신의 지은이가 유전학과 언어학, 신화학 등 각 분과학문의 수많은 지적 성과를 한 군데 묶어내는 지적 근육을 자랑한다.

2부는 두 반구 사이의 기후와 지리, 생물학적 환경(동식물군)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살폈다. 엘니뇨와 가축, 환각성 식물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강조하는데,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이라 할 것이다.

세계의 기후는 태평양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아시아 쪽에서 형성된 몬순은

비를 내려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발전시켰으며 점차 인도와 중국 문명을 낳는 산과가 됐다. 반면, 태평양 반대편의 남아메리카에는 몬순 대신 엘니뇨가 발생했다. 이는 극단적인 가뭄과 폭풍우를 가져왔고, 지은이는 이 상황을 “신은 신세계 인류에게 분노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지구의 태평양 판의 위치 탓에 남아메리카는 극심한 지진과 화산활동이 벌어졌다.

생물학적으로도 양쪽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유라시아는 다양한 곡물 재배가 가능했지만, 아메리카는 감자와 옥수수 뿐이었다. 곡물은 보관과 교환이 가능하지만 감자 등 구근류는 ‘잉여’라는 발상 자체가 불가능하다. 유라시아는 사육 가능한 다수의 포유동물이 살았지만, 북아메리카는 거의 없었고 남아메리카는 야마 정도만 있었다. 따라서 신대륙에선 유럽인의 정복 때까지도 쟁기질과 말타기가 없었다.

지은이는 이어 다른 역사에선 거의 다루지 않았던 마약류를 살폈다. 유라시아 쪽에도 양귀비와 대마가 있었지만, 농경 발달 등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맥주와 포도주 등 상대적으로 순한 알코올로 옮겨갔다. 반면, 남아메리카에서는 샤머니즘적 제의 전통과 결합한 환각제 사용이 보편화됐다. 담배, 코카, 초콜릿 등이 제의에서 사용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참고로, 이런 접근은 인류 문명의 불균형을 파헤친 <총, 균, 쇠>(재레드 다이아몬드 지음)를 떠올리게 한다. 유라시아의 동서(횡) 지형이 아메리카의 남북(종) 지형보다 훨씬 더 문명 발전에 유리했다는 지적과 가축 사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목은 이번 책에도 반복된다. 출판사는 이 책을 “<총, 균, 쇠>에 비견되는 역작”이라고 홍보하는데, 완전히 새로운 문제의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만큼 지적 충격을 줄지는 두고 볼 일이다.

3부는 양쪽 인류가 각각의 환경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비교했다. 유라시아에서는 문자(알파벳)가 만들어지고, 일신교가 대세를 이루며, 유목민(nomad)이 세계 정치의 ‘북병’으로 등장했다. 청동기시대에서 철기시대로 전이되는 시기에 유라시아 전역에는 전쟁 등 폭력적 상황이 만연했지만,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종교(사상)를 만들어냈다. 위대한 정신의 출현을 지칭하는 이른바 ‘축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메리카 쪽은 상황이 정반대로 풀려갔다. 쓰나미와 지진, 화산 등의 끊임없는 위협은 신의 분노로 받아들여졌고, 사람들은 신을 달래기 위해 희생제의를 강도를 높여갔다. 지구 반대편에선 인간 제물을 가축으로 대신하고 나중에는 피를 바치는 제의 자체를 폐지했지만, 이쪽에선 인간희생의 규모를 계속 키우는 등 폭력성을 강화했다. 이에 대해 서구인들은 아즈텍문명의 잔혹성을 나치스에 견주면서 비난하지만, 지은이는 다른 접근을 선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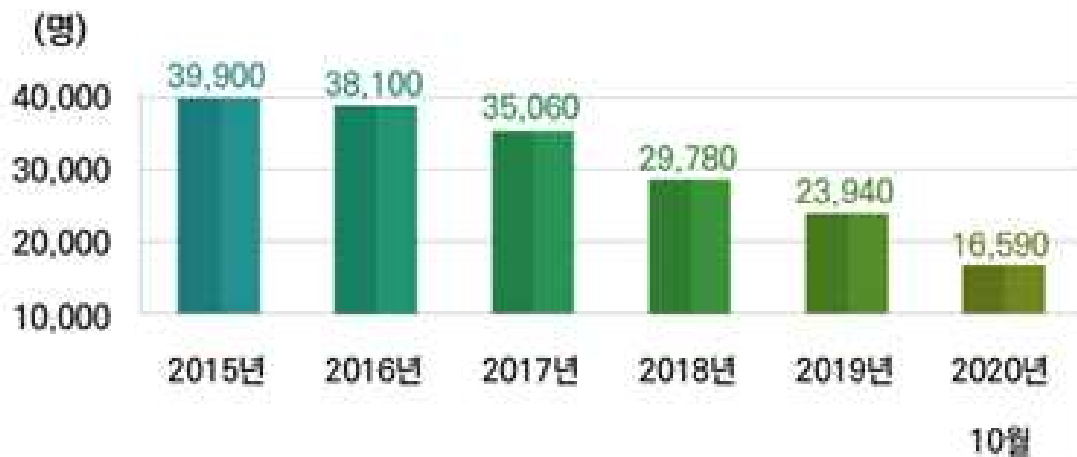
다. 그들한테 죽음은 종말이 아니었고, 따라서 희생 의식도 그렇게 잔인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종교 제의에 가까웠던 구기 시합에선 승패 결과에 따라 한쪽이 목 잘린 제물이 됐는데 때로는 승리한 자들이 제물로 바쳐졌다. 환각제와 함께 하면서 제의의 고통 자체가 종교적 체험이 됐다는 얘기다.

지은이는 결론을 찾아간다. “문명은 환경 적응의 산물이다. 양쪽의 주요한 차이는 서로 다른 환경적 조건에 따른 적응의 결과이다. ‘구세계’의 역사가 양치기의 역할에 의해 규정됐다면, ‘신세계’ 쪽은 주술사에 의해 좌우됐다.”

책은 이런 결론을 찾아 유장하게 흘러가지만, 서구 중심의 접근 태도는 곳곳에 배어 있다. 유라시아와 아메리카를 ‘구세계’와 ‘신세계’로 표현한 것은 유럽인의 시각임에 분명하다. 때로 너무 많은 사실과 학설의 나열로 지루하게 느껴지는 대목도 없지 않다.

## 2. 소담도서관 이용자 현황

### 1. 최근 5년간 도서관 이용자 추이(연간 이용자)



### 2. 최근 5년간 도서관 이용자 연령별 추이



### 3. 소담도서관 이용자 설문조사

#### 1. 조사목적

- 대민서비스 만족도, 도서관 시설, 서비스 분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서관 내 서비스 효과성 증대와 정책 신뢰성 향상
-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로 새로운 이용자 서비스 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직원의 의식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 마련

#### 2. 조사대상 및 기간

- 조사대상 : 소담도서관 이용자 400명
- 조사기간 : 2020년 6월

#### 3. 조사결과

- 도서관 이용 만족도
  - 만족 : 26.9 %, 보통 : 25.6 %, 불만족 : 47.5%
- 연령별 이용 만족도(100점 만점)



\* 영유아의 경우, 학부모 조사를 실시함

## <논리 피라미드>

만약 내게 비행기, 기차 또는 버스를 이용한 여행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언제나 비행기를 선택할 것이다. 비행기 사고에 대한 방송보도는 내 선택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을 것이다. 실제 통계적으로 항공 여행은 기차 여행이나 배 여행보다 매우 안전하다. 또한 방송보도로 항공사는 안전을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기차 또는 버스에 의한 사고가 더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사고가 더 크게 보도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비행기가 더 위험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 때문에 사람들은 비행기보다 기차나 버스가 더 안전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용하게 된다.

설령 비행기가 가장 안전한 교통 수단이 아닐지라도 나는 그 편리함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방송보도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여행 수단이다. 또한 우리는 항공 여행을 통해 가장 덜 피곤한 상태로 목적지에 도착해 비즈니스 또는 휴가를 준비할 수 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실제 가능성에 근거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이 비행기 사고에 대한 TV 뉴스를 보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다. 앞으로도 나는 합리적으로 살려고 노력할 것이고 가능하다면 항공 여행을 계속 할 것이다.

## 근로복지공단, 부산시와 손잡고 직장어린이집 확충 나서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과 부산광역시(시장 서병수)는 11월 11일 중소기업 밀집지역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현재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은 31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 이번 협약은 정부 3.0의 기본 가치인 '소통'과 '협력'에 바탕을 두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 공단과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 공단은 중소기업에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컨설팅 제공과 설치비(15억 원 한도,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고, 부산시는 설치비 중 기업 부담 분(최대 2억 원)을 지원하며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부산울산지역본부)를 통해 참여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보육수요가 많은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합동으로 입주기업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 이번 업무협약으로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 공단 이재갑 이사장은“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애로사항인 부지 부족,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정착시키고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2016년도부터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등 지원 사업이 고용노동부에서 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공단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에서 사후 운영관리까지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유일의 직장보육지원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 노원구, 토지 맞교환으로 구 재정에 숨통 트여

25년간 토지 활용을 못해 애물단지가 된 구유지와 국유지를 서로 맞교환하여 열악한 구 재정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지난 달 20일 기획재정부와 공릉동 육군사관학교 내 구유지를 중계본동 104마을 재개발 구역의 국유지와 상호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자치제 시행('95) 이전에는 국가와 지자체간 재산권에 대한 관계가 미정립되어 국가가 지자체소유 재산을 점유하고, 도로나 공원 등 공공용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는 국유지를 점유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에도 국가와 지자체간 재산권 정리가 미흡, 재산에 대한 점유자와 소유자의 불일치로 관리가 소홀하고 재산활용상 제약이 많은 것도 사실이었다.

또 2005년부터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업무 일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위탁되면서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이에 대한 지자체의 소송제기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때마침 지난 2010년 기획재정부와 서울시간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어 상호점유 해소대상 재산에 대한 실태 조사 등 국가와 지자체 간 재산권 정리에 탄력을 받기 시작, 상호점유 토지 교환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노원구의 경우 1988년부터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내에 구유지 9필지 17,786㎡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육사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로 무상으로 사용 중인 관계로 구의 사업에 활용하지 못하여 안타까워만 했다.

이에 노원구는 맞교환을 위한 토지 분필(分筆) 등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하여 중계동 104마을 재개발사업구역 내 국유지 30필지 21,650㎡와 육군사관학교 내 구유지 9필지 17,786㎡를 지난 해 5월 최종 교환대상 토지로 확정하고, 지난 1월 20일 상호점유 재산을 맞교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맞교환 계약으로 구는 향후, 재개발사업 착공 시점인 2016년 이전 매각절차를 거쳐 약 150여억원(감정평가액)의 매각 수입을 기대할 수 있어 구의 실질적인 재정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번 맞교환 계약을 하면서 해당 토지에 소재하는 배드민턴 클럽 회원들의 민원 해결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번에 교환된 중계동 산104-43번지(4,557㎡)에는 시설규모 600㎡ 회원수

300여명의 주민 체육 동호회인 '조일배드민턴클럽'이 위치하여 그동안 전 토지 소유자인 산림청의 토지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자가발전시설에 의존해 전기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운영비용의 과중으로 동호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였고, 그간 동호회 회장 및 회원들이 김성환 노원구청장에게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호소했다.

이에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생활체육시설 부지를 맞교환 대상 토지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이번 교환계약 체결로 한전에 전기사용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동호회 회원들은 김성환 구청장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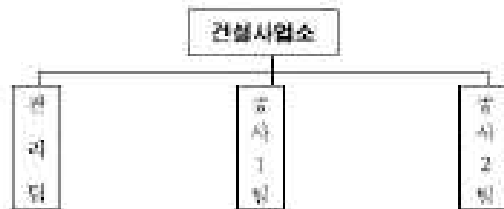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이번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토지 교환을 통해 노원구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구 재정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주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의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건설사업소 직제변경 계획안

2004년 4월 27일 개소된 건설사업소의 직제 및 분장 사무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여 날로 발전하는 건축문화 및 공사품질에 부합하여 공공건축물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1. 기구 및 정현원

### □ 기구



### □ 정·현원

#### ○ 직급별 현황

구분	인원	직 급 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원장직	과장직
정원	17	1	3	6	2	4	1		
현원	17	1	3	7	5	2	1		
증·감	-			+1	+1	△2			

#### ○ 직렬별 현황

구분	계	직 렬 별						
		행정	건설		운영		공인	기능직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현원	17	3	0	1	1	2	1	1

### □ 주요 분장 사무

- 분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청사 신·증·개축 공사
-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 공사
- 사회복지시설 공사

## 2. 직원 현황

소속	지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최초 일용일	현직급 일용일	현부서 일용일
건설사업소	소장					
관리팀	팀장					
	행정7급					
	행정7급					
	기능9급					
공사1팀	팀장					
	시설7급					
	공업7급					
	시설7급					
	시설8급					
	공업9급					
공사2팀	팀장					
	시설7급					
	통신7급					
	시설8급					
	공업8급					

## 3. 사무분장표

팀명	지위 (직급)	성명	분장사무	업무 대행자
건설사업소			○ 소 업무 총괄	
관리1팀			○ 기성검사 현장 확인 ○ 공사입찰 및 용역 계약 ○ 소 사무일만 지출 ○ 관급자채조달 및 물품관리	
공사1팀			○ 건축분야 설계, 감독지원 ○ 설비분야 설계, 감독지원 ○ 건축전기 및 전기업무 ○ 소방(전기)분야 총괄	
공사2팀			○ 건축분야 공사감독 ○ 통신분야 공사감독 ○ 토목, 소규모 건축분야 공사감독 ○ 전기, 소방분야 공사감독	

#### 4. 건설사업소의 한계(문제점)

##### □ 건설사업소의 역할

-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청사 신·중·개축 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 나날이 발전하는 건축 시공기술 및 건축설비 발전에 부응하여 건축미관과 기능 등에서 미래 지향적인 공공건축물 건립을 추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 최적의 예산으로 최고 품질의 공공 건축물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 □ 역할 충실의 어려움

- 직제상 시 산하 사업소로 편제가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본청(실·과)에 비하여 공사 관련 실무경험과 숙련도가 낮은 공무원이 배치됨으로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많으며,
- 본청의 숙련된 기술직 공무원들은 승진의 불이익과 근무평가 등을 이유로 사업소 근무를 기피할 수밖에 없고,
- 또한 하급직(신규직 및 8, 9급) 직원 배치와 잦은 인사발령으로 경험 축적 기간 부족과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발생.

##### □ 사업소 기능 취약

- 시행령 제77조 1호에 의거 사업소로 운영되어 효율적인 면보다 과 단위 업무로 추진되어도 하등의 문제가 없으며 인력 수급 및 업무 협조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
- 지방자치법 제1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 1호에 의한 사업소의 설치기준에 부합되지 않음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7조 (사업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소를 한시적으로 설치한다.

1.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2.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 5. 타 시 사례

### 성남시 : 도시주택국 시설공사과

- 시청 내 5급 과 단위로 3개팀(건축1, 2, 기전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시 건설사업소와 동일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부천시 : 도시국 시설공사과

- 시청 내 5급 과 단위로 4개팀(시설행정, 시설공사, 건축시설, 시설물관리) 17명으로 구성되어 우리시 건설사업소와 동일한 업무를 추진하되
- 건축공사의 폭이 넓고 하자관리 및 보상업무를 포함하고 있음.


### 안산시 : 사업소 미래도시개발사업단

- 5급 사업소로 우리시와의 차이점은 공공개발 업무를 추가하여 5담당 총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관리담당, 공공개발 1, 2담당, 공사 1, 2담당


### 고양시 : 사업소 건설사업소

- 4급 사업소로 3개과(개발과, 공사과, 국제전시과)를 두고 있으며
- 우리시 건설사업소와 동일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공사과는 4개팀(공사1, 2, 3, 4)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3개과 편제


## 6. 강화대책(개선방안)

### □ 건설사업소 직제를 과(課) 체계로 변경

- 건축 시설공사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건설사업소의 업무특성에 맞도록 과 체계 명칭변경
  - 제 1안) 건축시설과
  - 제 2안) 건축공사와
  - 제 3안) 시설공사와

### □ 직제 및 편제 조정

- 건설사업소를 도시계획국 산하 과 단위로 편제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수 있는 부서가 되도록 하여 건축시설공사의 품질향상을 기대

### □ 팀 및 인력(직렬) 재조정

- 과 단위로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 조정되는 관리팀(계약 및 회계 등)의 업무를 재배치하고
- 건축공사 업무 및 규모대비 과도한 시설직(토목분야) 인력을 조정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인력을 재조정하여 업무효율 증진 도모.
- 인력 및 직렬 조정
  - 관리팀의 행정지원 업무를 2명(행정7 2명)으로 축소 분산배치
  - 업무대비 과도한 시설직(토목분야)을 7급 1명으로 축소 전문화
  - 업무대비 부족한 시설직(건축분야)을 충원하여 건축공사의 품질향상을 기하고 소규모 공사의 자문업무 등을 원활히 수행
  - 건축설비팀 신설에 따른 공업분야(전기·기계) 인력을 충원 날로 증가 되는 건축설비(경관조명, 자동제어, 냉·난방 등)분야 품질향상 도모.

### ○ 팀 조정(안)

구분		주요업무
당초	관리팀	입찰, 계약, 회계 서무, 관급자재 관련
	공사1팀	본청 및 소속기관 청사 신·증·개축공사, 복지시설 등
	공사2팀	구청청사 신·증·개축공사, 사회 및 문화시설 등
변경	공사1팀	본청 및 소속기관 청사 신·증·개축공사, 복지시설 등
	공사2팀	구청청사 신·증·개축공사, 사회 및 문화시설 등
	건축설비팀	과내 건축설비(전기, 기계, 소방, 통신)



## 7. 기대효과

### □ 직제 및 인력조정을 통한 업무효율 증대

- 본청 도시계획국 산하 과로 편제됨에 따라 경험과 능력 있는 전문성을 겸비한 분야별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하는데 용이하고
- 업무 중요도 및 특성에 부합하는 인력으로 개편하여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업무역량 증대에 따른 현대화된 건축물 건립 및 품질향상을 기대함으로써 건설사업소 개소 취지에 부합되는 업무추진 가능
- 현대 건축물의 중요 부분인 건축설비(전기, 기계)의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공공 건축물의 기능 현대화에 일조.
- 아울러 본청에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업무 관련 협의 및 추진속도가 단축되어 원활한 업무추진 효과기대

## 8. 보고자 의견

- 우리시보다 앞서 건설사업소를 운영했던(또는 운영중인) 타 시는 시행착오를 통한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4급 사업소 또는 5급의 과(課) 단위로 편제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 향후 사업범위 확대와 기구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4급 체계의 사업소(또는 사업단)로 운영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나
- 우리시 건설사업소의 개소 취지 및 현재 진행 중인 업무를 고려한다면 성남시 및 부천시와 같이 5급 과장 중심의 과 단위로 편제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 판단되므로
- 건설사업소를 직제 및 편제를 도시계획국 산하 건축시설과 3개팀(공사1팀, 2팀, 건축설비팀)으로 조정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 또한 날로 확대되고 중요시 되고 있는 건축설비분야(경관조명, 자동제어, 소방, 통신, 냉난방 등)에 대하여도 중점적으로 확대 보강하여 현대화되고 내실 있는 공공건축물 건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붙임 1. 사업소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사본) 1부.  
2. 타 시군 직제현황 4부. 끝